

李奎報의 〈呈張侍郎自牧一百韻〉 분석

—청년기 이규보의 문학세계—

배규리*

<차례>

1. 문제제기
2.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의 창작 배경
3.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의 분석
 - 1) 목적을 위한 설득논리 구조
 - 2) '虞' 단일운의 정교한 배치
 - 3) 열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고의 활용
4. 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이 글은 그 동안 한문학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되지 못했던 李奎報 求官詩의 창작배경 및 문학적 특징을 밝혀, 청년기 이규보의 삶과 문학을 새롭게 밝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 문학은 전근대 문인의 주요한 삶의 방편이었으며 특히 구관시는 문인의 문학적 능력이 최대한 응축된 대표적인 형식이었으므로 구관시의 창작은 만연했던 풍조였다. 한편 무인정권이 들어서자 다수의 고려 지식인들이 환로가 막혀 곤궁에 처했고 따라서 그들은 문학을 통하여 절망적인 현실에 대응하려 하였다. 이규보의 구관시 창작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다. 수십 편의 이규보 구관시 가운데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은 그의 문학적 역량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구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칭송 - 상대방과 자신의 특별한 인연 환기 - 자신의 입장 호소 - 상대방 존재의 필수부가결성 강조'라는 4단락의 설득구조를 갖추는 전략을 썼다. 또 형식적인 면에서 기교를 자랑하기에 알맞은 까다로운 排律詩라는 형식이다, '虞'韻만을 사용하여 자신의 변화하는 감정

*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문학과, 석박사통합과정

을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博深한 전거 활용을 통해 자신의 지식수준을 드러냈는데 이는 단순한 전거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드러내는데 활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규보는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서 구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 모두에 걸쳐 자신의 문학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李奎報, 求官詩, 張自牧, 百韻詩, 무인정권

1. 문제제기

본고는 白雲居士 李奎報(1168~1241)가 관직을 얻기 위해 지은 작품인 <呈張侍郎自牧一百韻>¹⁾의 창작배경의 규명과 작품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작품이 求官이라는 뚜렷한 목적성 탓에 문학적 분석 영역에서 다소 벗어나있다는 점을 회의하면서 새롭게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문집 속에 전해지는 모든 작품이 학자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과 흔적을 특정한 기준이나 시선으로만 본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삶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폭력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의식의 이면에는 주어진 작품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고, 그것이 산생된 역사적 맥락, 문화적 분위기를 찬찬히 들여다봄으로써, 그 작품이 지닌, 혹은 지녔을 문학적 가치를 새롭게 밝히고 싶다는 소망이 들어있다. 특히 이규보와 같이 고려중기의 중심 작가의 경우에는 이런 再考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소박하지만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을 시작으로 그 작업을 시작하고자 한다. 젊은 시절에 지어진 이 작품에 대한 다시읽기를 바탕으로 이규보의 삶 전체를 시야에 두고, 그의 삶의 주기에 따라 진행되어온 내면의 풍경과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규보, 『東國李相國集』, 권1.

이규보의 문집인 『東國李相國集』은 전집41권과 후집12권으로 총 53권에 달한다. 그 가운데 운문 곧 시는 전집1~18권과 후집1~10권을 포함한 총 26권의 방대한 분량에 달하며, 거기에는 모두 1,360제 2,064수에 달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그 시들 가운데에서도 이규보가 司馬試에 응시하여 합격한 24세 이후부터 첫 벼슬에 오르는 32세까지 장장 10년 동안에 관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쓴 시, 즉 청년기 求官詩는 20편이 넘게 실려 있다.

<표1> 이규보의 구관시 작품 현황²⁾

연번	詩題	출전	시의 형식	대상
1	<呈張侍郎自牧一百韻>	전집 권1	배율시	張自牧
2	<呈柳承宣二首>	전집 권2	배율시	柳承宣
3	<呈崔秘監詵>	전집 권3	배율시	崔詵
4	<呈內省諸郎>	전집 권5	배율시	崔詵, 閔公珪, 李靖, 王儀, 房應喬, 白光臣, 李淳中
5	<上趙令公永仁 并引>	전집 권7	배율시	趙永仁
6	<上任平章 并序>	전집 권7	배율시	任平
7	<上崔平章讜 并序>	전집 권7	배율시	崔讜
8	<上崔樞密詵>	전집 권7	배율시	崔詵
9	<重上趙令公>	전집 권7	배율시	趙令公
10	<投崔吏部洪胤>	전집 권7	배율시	崔洪胤
11	<上右散騎常侍閔滉>	전집 권8	배율시	閔滉
12	<上直門下省金迪侯>	전집 권8	배율시	金迪
13	<上左諫議李桂長>	전집 권8	배율시	李桂長
14	<上右諫議李世長>	전집 권8	배율시	李世長
15	<上中書舍人高瑩忠>	전집 권8	배율시	高瑩忠
16	<上起居郎尹威>	전집 권8	배율시	尹威

2) 유점순, 「李奎報의 現實認識과 宦路詩 研究」,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52쪽.

17	<上左司諫金沖>	전집 권8	배율시	金沖
18	<上右正言崔光遇>	전집 권8	배율시	崔光遇
19	<投李吏部>	전집 권8	배율시	李部
20	<又贈尹公>	전집 권8	배율시	尹威
21	<次韻趙亞卿沖見和 亞卿 趙相國季嗣>	전집 권9	배율시	趙亞卿
22	<己未五月日 知奏事崔公宅 後爲晉康公 千葉榴花盛開>	전집 권9	배율시	崔忠獻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은 그의 구관시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그의 다른 구관시에 비해 문학적 역량과 기술을 총동원한 작품이다. 이 시는 이규보가 26세 때 관직을 얻기 위해 당시 국자감시를 주관하던 張自牧(?~?)에게 쓴 것으로서³⁾ 百韻이나 되는 長詩에 수많은 전거를 사용하며 자신의 박식함을 과시하였고, 당대 지식인이 가진 관직에 대한 욕망과 인정받길 원하는 인간적인 열망을 종합적으로 드러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규보를 보다 넓게 이해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당 작품의 전체적 면모를 밝힐 필요가 있다.

대체로 기존의 문인이나 연구자들은 <呈張侍郎自牧一百韻> 뿐만 아니라 구관시라는 형식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해온 경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시대에서부터 시작된 듯하다. 李德懋(1741~1793)는 이규보가 최충헌에게 아부하여 翰林에 제수되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그의 문학은 추술하고 산만하다고 말했다.⁴⁾ 조선에서 이어진 구관시에 대한

3) 이규보, 위의 책, <年譜>, “癸丑明昌四年公年二十六, 是年, 作百韻詩, 呈張侍郎自牧, 張公厚遇, 每謁, 常置酒與飲.”

4)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3, 『淸脾錄』 권2, <李春卿>, “李奎報字春卿, 號白雲居士, 黃驪人. 九歲, 能屬文, 高麗明宗朝登第, 後附崔忠獻, 拜翰林在諫院. 十九年, 官至太尉. 爲詩文, 頃刻百篇, 汪洋大肆, 自名唐白, 時人目之曰, 走筆李唐白. 年十四, 籍文憲公徒, 每夏課刻燭占韻, 名曰急作, 春卿連爲榜頭, 同輩皆不及. 狀詩苦無警切之趣, 粗辮散漫, 名不副實. 惟其敏速富瞻, 故人皆畏之, 生時固可畏, 死後不足觀.”

이러한 부정적 관점이 현재에까지 이어지는 한편, 현실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시라야 문학성이 있다고 하는 근대의 일부 연구자들의 경향으로 인하여 구관시는 문학적 함량이 부족하다고 평가된 측면이 없지 않다.⁵⁾

이로 인해 이규보의 시에는 구관시를 비롯하여 아직도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⁶⁾ 이규보의 청년기 때 지어진 시 중에서 혼란한 사회와 문란한 정치에 각성하여 지어진 <東明王篇>과 <開元天寶詠史詩>를 중심으로만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한편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 대해서는 유독 “동문은 모두 날개를 떨치는데, 오직 나만 여전히 느릅나무에 부딪치는 구나.”⁷⁾라는 한 대목만을 주목하여, 관직 진출이 비교적 여의치 않았던 젊은 시절 이규보의 초조한 심리를 보여주는 근거로써만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⁸⁾ 또 이 작품은 상기한 대로 권력자에게 헌정하기 위해 지어진 시의 하나로 치부된 탓에 비중 있게 다루어진 적이 없음은 물론, 해당 작품에 드러난 문학적 연구도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⁹⁾

-
- 5) 신동욱의 「高麗時代批評論考」, 「高麗詩評考」, 김현의 「중세지성과 권력」, 김정수의 「이규보 시문학연구」, 이동철의 「이규보 시의 주제연구」, 배상우의 「李奎報의 求官詩 研究」 등에서 그러한 경향이 발견된다.
- 6) 이규보에 관한 연구는 작가론, 작품론, 문학론 등 그의 문집만큼이나 방대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시에 대한 연구로는 1960년대 <동명왕편>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70년대는 시의 전반적 문학 흐름을 다루는 논문이 주류이며, 80년대는 시 전반의 특징과 社會詩에 주목하고 있다. 90년대는 그의 문학사상과 세분화된 주제로 연구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와 시를 통해 이규보의 내면 및 중국 작가와의 비교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규보 연구 가운데 <동명왕편>과 농민 현실을 고발한 社會詩 부분에 연구가 편중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본고는 이규보에 대한 종합적 연구사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위와 같은 추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후고를 약속한다.
- 7) 이규보, 위의 책, 권1, <呈張侍郎自牧一百韻>, “同門皆振翮, 唯我尙搶榆.”
- 8) 김용환, 「李奎報의 現實意識과 求官詩」,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4쪽; 배상우(2004), 위의 논문, 33쪽; 이희영, 「李奎報 漢詩의 內面意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3쪽.
- 9) 이희영, 「李奎報 排律 研究」,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40, 2018, 408쪽. 이 논문에

하지만 한문학은 그 당시 지식인에게 일상 그 자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의 글들이 존재 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무수히 다양한 글들이 모두 엄격한 문학적 형식이나 체제를 갖추어야 했고, 깊고 방대한 학식과 치밀한 창작전략이 있어야 했다. 관직을 얻기 위한 작품인 구관시 역시 일상에 적용되었던 실용적인 수단이었고 동시에 이상과 같은 엄격한 자격을 갖추어야 했던 엄연한 ‘문학’이었다. 구관을 위한 작품이 이 규모의 다양한 문학 작품 중 하나의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규모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서는 그의 구관시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을 正視하며 그 창작의 문화배경과 내적 논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2.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의 창작 배경

‘求官’이란 관직을 얻기 위한 활동이다. 즉, 관직을 만들어줄 능력이 있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자에게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 그 관직으로 나아갈 기회를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의 문학적 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시를 지어 요직에 있는 자에게 바치는 ‘求官詩’가 있다. 구관시의 내용은 대략 상대를 칭송하는 말로 시작하고 아울러 구관을 할 수 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구관시는 가까운 중국에서도 살펴볼 수 있으며, 우리에게 알려진 굵직한 문인들의 작품에서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먼저, 唐나라의 뛰어난 시인 李白(701~762)과 杜甫(712~770)는 시대

따르면,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의 詩體는 讚頌과 自敘를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시 형식인 排律로 지어졌기 때문에 조정에 있는 관리들에게 奉贈하기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고는 장편의 排律은 자신의 文才를 드러내는 데 1차적인 의도가 있으며, 이규모가 장편에 능했던 탓에 선택된 형식으로 생각한다.

를 막론하고 많은 시인들의 존경과 추종의 대상이었다. 고려뿐만 아니라 조선에서도 그의 작품은 자주 원용되어 왔는데 뛰어난 실력을 가진 두 사람도 구관을 목적으로 하는 시를 적잖게 창작했다. 그 이유는 과거에 급제하고도 벼슬에 나아가는 일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백은 당시 형주 자사였던 韓朝宗(686~750)에게 편지를 보내어 “평생에 萬戶侯에 봉해질 것은 없고 한 형주를 한번 알기를 원할 뿐이다.”¹⁰⁾라는 유명한 말로 자신이 가진 靑雲의 뜻을 가능케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또 두보는 당시 요직을 맡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관직에 대한 포부를 알려 직접적으로 벼슬에 나아가고자 했다.¹¹⁾ 역시 당나라 시인이었던 朱慶餘(797~미상) 또한 과거시험을 앞두고 <近試上張籍水部>¹²⁾란 구관시를 지어 시험 담당자였던 張籍(766~830)에게 보냈다.

洞房昨夜停紅燭	洞房에 어젯밤 붉은 초를 세웠나니
待曉堂前拜舅姑	새벽을 기다려 묘당 앞에서 시부모께 배알하네
妝罷低聲問夫婿	단장을 마치고 소리 나직하게 남편에게 묻나니
畫眉深淺入時無	눈썹을 그렸는데 짙은지 얇은지 때에 맞는지요?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면, 새색시의 눈썹에 자신의 글을 비유하여 글 솜씨가 어떠한지 묻고 있다. 이에 장적도 주경여의 시에 <酬朱慶餘>¹³⁾로 답가했다. 이렇듯 자신의 글을 상대에게 보냄으로써, 스스로 시적 재능을

10) 李白, 『李太白集』, 권25, <與韓荊州書>, “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

11) 姜구영, 『杜甫의 求官詩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 논문에 따르면, 唐代에 관직을 구하기 위해 ‘干謁’이라는 풍조가 있었는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설명하며 두보 또한 구관을 목적으로 다량의 구관시를 창작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12) 朱慶餘, <近試上張籍水部>.

13) 張籍, <酬朱慶餘>, “越女新妝出鏡心, 自知明艷更沈吟. 齊紈未足時人貴, 一曲菱歌敵萬金.”

내비침과 동시에 이를 계기로 인연을 맺는 수단을 삼는 일은 흔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이런 유형의 글을 창작했고 그럼에도 그들의 글은 비판받기보다는 빼어난 글이라고 칭송받으며 『古文眞寶』 등에 실려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인용되어 왔다.

전근대 문학이란 그 용도가 대단히 넓어 사회 구성원간의 親交를 다지는 것이 주요한 역할이자 기능이었기 때문에 교제에 있어서 아주 실용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구관시도 문학의 사회 친교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듯 구관에 관한 글은 과거에 합격하더라도 추천이나 연분 없이 임용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분을 맺기 위해 창작되기도 했고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도 쓰였으며, 자신의 시재나 능력을 내보이기 위해서나 혹은 격식이 필요한 자리에서 구색을 맞추기 위해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관시는 당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두루 보이는 보편적인 사회 풍조이자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풍조의 유행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문신과의 차별대우에 극심한 불만을 가진 무신들에 의해 1170년 武臣亂이 일어났다. 무신란의 주동자들은 “문관을 쓴 자는 胥吏라도 죽여서 씨를 남기지 말라.”고 외치며 기존의 질서와 관행을 한 번에 뒤집어엎고 제멋대로 굴었다. 이는 고려 역사상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연히 문신들에게는 암흑기였다. 무신란에 의해 기존 문신귀족이 몰락했고 또 주된 직책인 內侍나 同修國史 등에 무신을 보임하는 형식으로 문신의 등용을 줄여 나갔다. 더구나 다소 차단된 지식인들의 환로마저도 무신정권과의 교류가 없으면 벼슬을 할 수 없었다. 그로 인하여 이 시기 다수의 고려 지식인들의 생활이 곤궁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따라서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능했던 문학을 통하여 절망적인 현실에 대응하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문학의 사회 친교적인 기능을 적극적으로 이

용하여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그 주된 도구가 바로 구관시였다.

이러한 흐름에 동참했던 대표적인 문인 몇몇을 꼽아보자면, 李仁老(1152~1220)를 우선 들 수 있다. 이인로는 무신란에 의해 몰락한 문신귀족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서 19살에 정중부를 피해 佛門에 귀의했다가 환속한 이후, 29살에 급제하여 31살에 관직을 얻었다. 그도 관직을 얻기 위해 당시 재상에게 구관시를 받쳤는데, 그의 문집인 『破閑集』에 나오는 시의 일부를 살펴보자.

報恩心款款 보은하려는 마음 간절하건만
誰是救枯鱗 뉘라서 물 말라 죽어가는 고기를 구제하리오

이 작품은 『東文選』에 <獻時宰回文>이란 제명으로도 실려 있다. 여기서 ‘回文’이란 漢詩體의 한 종류로, 廻文詩라고도 한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든지 끝에서부터 거꾸로 읽든지 모두 의미가 통하고, 平仄과 韻도 꼭 맞아야 하는 문체이다. 이인로는 회문시라는 형식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스스로 고려의 李知深(?~1170)의 체를 본받아서 이 回文詩를 짓고 당시 재상에게 그것을 받쳤다고 말하고 있다.¹⁴⁾ 그 내용은 여타의 구관시처럼 벼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과 당장의 가난하고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며 자신을 도와달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이인로 스스로 구관시를 지은 것을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西河集』의 작자인 林椿(?~?)도 <次韻李相國知命見贈長句二首>¹⁵⁾란 구관시를 李知命(1127~1191)에게 보내어 관직을 구하고자 했

14) 李仁老, 『破閑集』, 권上, <回文詩起齊梁, 盖文字中戲耳>, “僕亦效其體獻時宰云, ‘早學求遊宦, 詩成謾苦辛, 老懷春絮亂, 衰鬢曉霜新, 倒甌朝炊斷, 飢腸夜吼頻, 報恩心款款, 誰是救枯鱗.’ 夫回文者, 順讀則和易, 而逆讀之亦無聲牙艱澁之態, 語意俱妙, 然後謂之工.”

다. 시의 일부를 살펴보자.

禮闈見擯誠我分	과거에서 밀쳐진 것 참으로 나의 분수러라
戰藝無奈無先聲	재주를 겨루지만 先聲이 없음에 어찌지 못하네.
却拋文卷將向江東去	문득 시권을 던지고 강동으로 가려다가
徘徊來謁朱門	주저주저 찾아와 朱門에 올린다오

과거에 낙방한 임춘이 세상에 나아가길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고관대작들을 방문하여 자신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임춘은 관직을 구하는 편지를 네 번 쓰고 한번의 詩를 지었다.¹⁶⁾ 이인로와 임춘, 이 두 사람은 문인의 기능적 지식인화의 전 단계 즉, 崔滋로 대변되는 ‘能文能吏’적 지식인으로 고정되기 이전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자신의 재능을 고위 관직자나 교유의 대상에게 직접 뽐내어 자신을 알려야 했다. 스스로 내보여야지만 벼슬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관시를 짓는 것은 친교적인 활동임과 동시에 등용의 기회를 얻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규보의 구관시 창작 역시, 이런 문인들의 일반적인 풍조와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당시 문인들은 등용의 기회조차도 정권의 최측근이 아니면 될 수 없었고, 능력의 실현도 불가능 했다. 그는 명종 20년(1190) 禮部試에 합격하였으나 그로부터 9년이 지난 신종 2년(1199)이 되어야 처음으로 全州牧에 司錄 겸 掌書記로 임명됐다. 이처럼 등용이 늦어진 데에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관직의 수가 부족했던 탓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최씨 정권과의 별다른 유대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15) 林椿, 『西河集』, 권2, <次韻李相國知命見贈長句二首>.

16) 편지는 <上金侍郎啓> <上李學士知命書> <代李湛之寄權御史敦禮書> <上刑部李侍郎書>이고 詩는 <次韻李相國知命見贈長句二首>이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재능을 뽐낼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구관시으로써 座主·同年과 같은 교유관계에 의지해 자신을 드러내야 했다.¹⁷⁾

이러한 이유에서 그는 명종 23년(1193) 26살에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을 지어 당시 禮部侍郎으로 있던 장자목에게 바쳤다. 먼저 장자목이라는 인물에 대해 알아보자면, 禮部侍郎, 太僕卿寶文閣直學士 등을 역임한 관리라는 사실만 『高麗史』·『高麗史節要』에 기록되어 있을 뿐 그다지 알려진 정보가 없다. 다만 장자목이 당대의 명사들로 구성된 詩會인 ‘海東耆老會’의 회원이었다는¹⁸⁾ 기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맥이 권세자에게 닿아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또 12세기 후반 고려의 문단을 주름잡던 해동기로회가 최초의 ‘집단지성’인 만큼 기로회의 회원인 장자목은 이규보의 시적 재능을 살펴볼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고 추정된다.¹⁹⁾ 결과적으로 장자목이 이규보가 관직을 얻는 것에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이규보가 百韻詩를 지어 장자목에게 올린 이후 두 사람은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이 쓰인 당시에도 이미 두 사람은 가까운 관계였지만 이 작품 이후에 이규보는 “장공이 후히 대우하여 매양 찾아볼 때마다 술을 차려 함께 마셨다.”²⁰⁾는 것을 시작으로 장자목이 태복경 보문각 직학사로 致仕한 것을 축하하는 계를 지어 올리기도 하고²¹⁾ 이규보가 관직을 얻은 후에도 함께 지인을 방

17) 김효섭, 「고려 무신집권기 李奎報의 관료생활과 교유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7쪽.

18) 『고려사』, 권99, 열전, 권12, <崔謙>, “與弟守太傅說, 及太僕卿致仕張自牧·東宮侍讀學士高瑩中·判秘書省致仕白光臣·守司空致仕李俊昌·戶部尚書致仕玄德秀·守司空致仕李世長·國子監大司成致仕趙通等, 爲耆老會, 逍遙自適. 時人謂之地上仙, 圖形刻石, 傳於世.”

19) 하정승, 「고려시대 유학 교육과 여말선초 학맥의 형성」, 『동방한문학회』 82, 2020, 195~6쪽.

20) 이규보, 위의 책, <年譜>, “癸丑明昌四年公年二十六, 張公厚遇, 每謁, 常置酒與飲.”

21) 이규보, 위의 책, 27권, <賀張侍郎自牧解職後拜太僕卿寶文閣直學士仍致仕啓>.

문하기 위해 약속²²⁾도 잡는 등 두 사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고려, 두 나라에 있던 구관시의 전개흐름을 통해서 구관이라는 활동이 긴 세월 존재해왔던 보편적인 활동이었고 그것의 문학적 발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구관시의 창작이 당시에 만연했던 풍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文才에 대한 자신감과 문학을 활용한 보편적인 사회 친교적 활동에서 벗어난 구관시를 굳이 불건전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 이 고민을 시작으로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 들어있는 설득의 논리구조, 운자의 활용을 통한 일관된 가락의 유지, 폭넓은 閱讀을 통한 지적 자신감의 표출 등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도록 한다.

3.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의 분석

기본적으로 구관시는 교유관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관직을 얻기 위해 짓는 작품이다.²³⁾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여 자신이 그 관직에 얼마나 적합한 인물인지, 또 얼마나 그 관직에 대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아가 자신의 현재 상황이 해당 관직을 얻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등을 내용적으로 소상하게 알려야 하되, 스스로의 文才를 과시하기 위하여 철저하고 정교하게 계획된 한 편의 문학 작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야 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탁월한 창작능력을 통하여 상대를 매료시킴으로써 구관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했다. 許穆(1595~1682)은 이규보에 대해 “李相國이 특히

22) 이규보, 위의 책, 2권, <奉寄張學士自牧, 裊天院湍. 兼簡足庵聆首座. 并序>.

23) 김용환(1989), 위의 논문, 6쪽.

나 웅장하였다. 본조 제가의 작품 또한 훌륭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간
이의 작품들은 특히 웅건하고 간결하여 유독 뛰어났으니, 천년에 한 번
나올 인물이라 할 수 있다.”²⁴⁾라고 하였고 혹독하게 이규보를 비판한 金
昌協(1651~1708)조차 “재능이 민첩하고 축적된 식견이 풍부하여 많이
짓고 빨리 짓기를 겨루자면 당대에 따를 자가 없었다.”²⁵⁾라고 하였다. 이
제부터는 이규보가 어떤 방식으로 상대를 설득하는지, 어떤 형식을 사용
하였는지, 어떤 韻자를 활용하였는지, 어떤 전거를 사용하여 <呈張侍郎
自牧一百韻>를 지었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목적을 위한 설득논리 구조

<呈張侍郎自牧一百韻>²⁶⁾은 구관을 노래한 오언배율 시로, 전체 196

24) 許穆, 『記言』, 권18, <簡易堂稿>, “自高麗中世以後, 文學甚盛, 李相國, 牧隱最著
聞, 李相國特雄偉. 本朝諸名家作者, 亦不爲不盛, 而簡易諸作, 特瑰健簡奧, 獨傑
然, 可爲千載一人云.”

25) 金昌協, 『農巖集』, 권34, <雜識 外篇>, “蓋其材力捷敏, 蓄積富博, 爭多鬪速, 一
時莫及. 又能自造言語, 不蹈襲前人以爲工, 亦可謂有詩人之才矣.”

26)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世家流慶遠, 我丈稟靈殊. 爽露凝瓊樹, 寒水映玉壺. 名
聲驚霹靂, 胸臆貯江湖. 門繼清廉鎬, 朝登質直醕. 雪中松性古, 天上桂枝孤. 瑞夢
曾徵鳳, 明時敢憶鱸. 馮唐方見遇, 顏氏舊如愚. 帝室誇三鏡, 明堂寶六瑚. 彤霄循
北拱, 蒼海聳南圖. 演誥唐麻上, 分儀漢絕隅. 沐芳承湛露, 縱轡驚長衢. 酒膽鍾星
白, 忠誠折檻朱. 轡人才落落, 好士樂愉愉. 憶昔初投刺, 相迎似合符. 夤緣近美玉,
想像置生菰. 投轄情何厚, 含杯氣益麤. 處囊容趙客, 橫氣試齊巫. 佳樹旌幢卓, 名
花錦繡敷. 但欣青眼眄, 何倩翠眉姝. 文挾曹劉髓, 詞窮屈宋腴. 芳醪斟石凍, 異味
雜山膚. 門客三千忝, 詩籌一百輸. 瓮邊眠畢卓, 堂上宿淳于. 大冶鎔頑鑛, 洪溟納
細汙. 再來增款密, 歡笑益姁媮. 極辯馳黃馬, 遺篇詠白駒. 枉聯東野句, 頻倒伯倫
觚. 吟榻薰風散, 歸程晚霧紆. 醉誇攀學士, 驕不避金吾. 意已黃金重, 情難白骨渝.
雄詩三絕在, 聖草十行俱. 擬作家傳寶, 唯懷鬼奪虞. 詭粧欺友倩, 絕辟倒嘉謨. 荷
重猶投李, 酬卑合覆瓿. 蹇予誠齷齪, 賦命實崎嶇. 寒谷生水子, 衰衣着腐儒. 癡龍
殊未辨, 乾鼠謾相沽. 醜質慙康瓠, 銛鋒謝湛盧. 北宮慙駕輦, 南郭望吹竽. 闕里攀
龍鳳, 春官戰虎貔. 一鳴方駭世, 十影擬過都. 左相曾邀飲, 寧王許醉扶. 玉顏羅密
座, 珍膳出豐廚. 夜飲長侵曉, 朝吟動及晡. 牡丹園上醉, 楊柳陌邊驅. 晚落蟠泥困,

구 980자나 되는 매우 긴 분량의 장편시이다. 그 속에 이규보는 다양한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을 능력과 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그를 통해 관직의 획득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고자 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관직을 얻는다.’라고 하는 실용적인 목적성을 분명하게 띠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이 작품이 어떤 구성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러한 구성을 통해 이규보가 자신의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려고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의 설득구조는 크게 보아 ‘상대방의 칭송—상대방과 자신의 특별한 인연 환기—자신의 입장 호소—상대방 존재의 필수부가결성 강조’라는 4단락으로 순차별로 나누어진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상대방의 칭송이다. 여기에서는 상대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제1구에서 제26구까지에 해당하는데, 이규보가 장자목을 칭송하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내용의 전개는 상대방의 집안으

那堪撫劒吁. 道長猶恐泥, 泉澗自難濡. 絃絕何由續, 牆頑肯可圻. 同門皆振翮, 唯我尙搶榆. 故故容顏改, 垂垂歲月徂. 六身催倒亥, 三足未留烏. 心思如懸旆, 功各劇守株. 愁期千日醉, 病廢四方餽. 讒構交相扇, 行藏甚似拘. 樊蠅頑不死, 市虎動成誣. 處處嗔投壁, 人人慮竊鈇. 嘲龍多輓蜓, 襲狗幾謁駒. 鬱鬱同平子, 申申愧女媸. 自啼無用血, 渾斷苦吟鬚. 奔走如郵吏, 遷延似賈胡. 杜園空費望, 陶徑想應蕪. 擬脫嬰身網, 歸安曳尾塗. 灌畦常措措, 鼓缶樂鳴鳴. 南去將經楚, 東遊遂極吳. 帶苓聳叟結, 學圃小人須. 船尾抄雲子, 江頭種木奴. 飲河盈臄腹, 跳井沒蛙跗. 天地爲遊子, 煙波作釣徒. 飄思神聖代, 何忍草萊連. 佩潔紉芳蕙, 巢寒戀碧梧. 操修憐汲直, 夢想對高龕. 身世煩窺鏡, 生涯倦織紵. 出言雖切切, 迴眼例盱盱. 竹實談雞鶩, 椿年語螻蛄. 自嗟遭世晚, 人道與時迂. 雷雨初驚後, 乾坤可滌無. 死灰期復燭, 病樹會重蘇. 器識雖云淺, 心吁要欲刳. 不才堪搦朽, 高論孰噓枯. 幸感賢知己, 常稱一鄙夫. 衣冠將飾越, 脂粉強粧模. 有玉深藏櫃, 爲金好躍爐. 波臣如得水, 淵客豈無珠. 曩阻捫衣禮, 時方曳履趨. 琴僧折簡召, 笙客隔牆呼. 話舊元無倦, 論文亦頗娛. 鼻邊逢匠石, 背癢得麻姑. 始末如深遇, 槩損有薄軀. 每承親昵昵, 罄寫意區區. 小隱何人到, 端居十日踰. 曉霞紅綺散, 夜雪白氈鋪. 冷火空頻撥, 寒酷孰與料. 虛堂無客位, 幽室學僧趺. 忽憶參商別, 潛悲楚越逾. 仰風滋眷戀, 回首亮踟躕. 苦欠奉書鶴, 欲爲趨藻鳧. 試歸如會面, 不敏敢逃誅. 孟浪詞雖拙, 公無笑囁嚅.”

로 시작, 개인적인 성품에 이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과 조정에서 인정 받은 장자목의 공적을 읊었다.

名聲驚霹靂	명성은 우레처럼 놀라게 하고
胸臆貯江湖	가슴 속엔 강호를 담았어라
門繼清廉鎬	문호는 청렴한 張鎬의 자취 이었고
朝登質直醜	조정에선 정직한 張醜의 경지에 올랐지
雪中松性古	눈 속에 예스런 솔의 성품이오
天上桂枝孤	하늘 위에 고고한 계수 가지로다
瑞夢曾徵鳳	길몽에 일찍이 (張鷟의) 봉황을 징업했고
明時敢憶鱸	태평 시절이라 감히 (張翰의) 농어를 생각하랴

도입부의 일부이다. 장자목에 대한 칭송을 그의 집안으로부터 시작하고, 이어 그의 개인적인 성품으로 자연스레 이어가고 있다. 명성이 자자하나 가슴 속에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고 성품은 추운 겨울의 소나무와 같이 고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사에 나오는 인물 4명을 언급하였는데, 모두 장자목을 비유하는 말로 환관들에게 굽히지 않다가 파직당한 張鎬처럼 청렴하고 張醜가 태자의 과실을 바로잡듯 조정에서 정직한 인물로 평가받았으며 張鷟이 길몽을 꾸고 장원이 되었듯 그 또한 장원급제하였고 어지러운 세상에선 張翰처럼 벼슬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표현했다. 등장인물들 모두 공교롭게도 장자목과 같은 '張'씨 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우연이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이규보는 고사 가운데 장자목과 같은 성을 지닌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골라 그들의 훌륭한 사례를 거론함으로써 장자목의 훌륭함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구관의 뜻을 드러내기 전에 우선적으로 상대의 집안, 성품, 공적에 대한 훌륭함을 추켜세우고 장씨 성의 인물과 같은 선상

에 놓아 칭찬했고 이를 통해 이규보는 장자목의 환심을 샀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자신의 특별한 인연 환기이다. 제27구에서 제42구까지로서 첫 만남부터 두 사람은 마치 부절을 합한 듯 마음이 맞았다고 하면서, 주로 ‘술’과 ‘시’라는 두 매개물을 통해 즐겁고 화려한 연회의 분위기를 그리며 남다른 결속을 다졌다는 사실을 서술하고 있다.

再來增款密	다시 오니 한층 더 정다올사
歡笑益姁媮	기쁨과 웃음이 더욱 즐거워라
極辯馳黃馬	훌륭한 변론은 황마가 달리고
遺篇詠白駒	남긴 시편은 백구를 읊었지
생략	
醉誇攀學士	취해서 술기운에 학사를 붙드는데
驕不避金吾	교만히도 금오랑도 꺼리지 않았네
意已黃金重	뜻은 벌써 황금처럼 중하거늘
情難白骨渝	마음은 백골토록 변하기 어려우리

둘 사이가 각별한 인연임을 보여주는 매개는 단연 ‘시’와 ‘술’이다. 이규보와 장자목,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서로 시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이규보가 장자목에게서 받은 시가 “흰 땅아지처럼 귀한 손님을 붙잡아 둔다.”라는 내용이라고 서술한 부분에서 알 수 있고 또 자신의 글은 장독 뚜껑에나 어울리듯 보잘 것 없어 보여드리기 부끄럽다는 말한 부분, 自註에서 “공이 증별시 세 편을 초서로 써서 나에게 주었다.”²⁷⁾고 알려진 부분을 통해 그들의 소통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시를 쓰는 행위의 의미는 피차간의 감정을 교류한다는 것이며 또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는 것을 말한다. 두 사람의 사이가 그만큼 마음을 터놓

27) 이규보, 위의 책, 권1, <呈張侍郎自牧一百韻>, “公以草書贈詩三首.”

고 이해하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는 한편 문학으로 맺어진 文友로서 교류하니 관계의 품위와 격식을 높이며 단순히 시정잡배의 이익으로 뭉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 지체가 다른 상대를 함부로 붙들며 금오랑도 꺼리지 않을 정도로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는 행위의 의미는 극히 마음 편하고 친한 관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를 주고받는 것은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으면 가능한 것이지만 이 정도의 행위는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통해 상대와 자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접근 못할 정도의 특별한 추억을 공유한 관계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입장 호소이다. 제43구부터 제132구까지로 이규보 자신에 대한 이야기와 현재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를 우둔한 사람이라고 겸손하게 소개하고 同門들에 비해 벼슬 진출이 늦어진 상황과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모함으로 인해 힘든 처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피눈물이 날 만큼 힘든 것은 동문들과의 비교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모함도 아닌 세상에 쓰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翻思神聖代	되풀이 생각하니 태평성대라
何忍草萊逋	어이 차마 초야에 숨으리오
佩潔紉芳蕙	깨끗한 몸가짐에 방초며 해초를 차고
巢寒戀碧梧	싸늘한 집안에 벽오동을 꿈꾸네
생략	
死灰期復煽	식은 재도 다시 불이 붙길 기약하고
病樹會重蘇	병든 나무도 다시 소생할 수 있으리
器識雖云淺	기량과 식견이 비록 천박하다 해도
心吁要欲劄	마음속의 근심을 도려내고파

不才堪擲朽 재주 없어 억눌려 썩힐 만하거니와
 高論孰噓枯 높은 논의로 누가 메마른 나무에 숨을 불어넣어 주리

여러 가지 사정으로 관직을 얻기는 힘들지만 벼슬길에 나아가고 싶다는 뜻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현재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규정한 것이다.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 감추어 두는구나.”²⁸⁾라고 하였는데, 문인들이 거세되고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세상은 분명 유자에게는 ‘도가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규보는 오히려 관직을 구하는 시에서 자신이 관직에 나아가는 또 하나의 명분을 공자의 이상과 같은 논리에서 찾았다. 무신 정권을 태평성대로 본 이규보의 역사의식은 유자로서는 분명 모순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규보는 현재의 시대를 도가 실현된 태평성대라고 규정하였고, 그렇기에 자신의 구관이 오로지 관직을 통해 일신의 영화를 얻기 위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자신은 초야에 숨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 관직활동을 하고 세상에 포부를 펼쳐야 하는 것이다.

이규보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비관적으로 표현했지만 연이어 바로 뒤에 식은 재와 병든 나무가 다시 살아날 지도 모른다는 희망적 앞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는데 이것은 이규보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락의 마지막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입장을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의 연민을 일으켜 동정심을 얻고자 했다.

네 번째는 상대방 존재의 필수부가결성 강조이다. 제133에서 마지막 구까지로, 이 작품의 마지막 결론부분이다. 장자목이 자신에게 있어 얼마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8) 『論語』, <衛靈公>,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波臣如得水	물고기가 물을 얻은 듯하니
淵客豈無珠	인어가 어찌 진주가 없으리
曩阻摳衣禮	전날에는 옷자락 끝 예도 막혔는데
時方曳履趨	지금은 바야흐로 신을 끌고 뒤 쫓는 구나
생략	
話舊元無倦	옛일 말하는 것 원래 피곤한 줄 모르지요
論文亦頗娛	글을 논의하는 것 또한 제법 즐겁만하네
鼻塤逢匠石	코에 떨어진 흙덩이는 장석을 만났고
背癢得麻姑	등의 가려움은 마고를 얻었네
始末如深遇	처음부터 한결같이 깊이 알아주시니
麋捐有薄軀	미약한 이 몸 받치오리다.

상대는 자신을 담금질 해줄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이고 물고기의 물처럼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말하며 자신을 도와주면 훗날 그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하리라는 약속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서로의 추억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상기시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또 구관을 위해 지어졌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관직을 요구하기보다 상대방을 중요한 존재로 각인시켜 힘든 상황 속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것을 강조였다. 이를 통해 자신의 부탁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단락을 모두 살펴보았다. 이 시에서 이규보는 먼저 상대방을 칭찬해 환심을 사고 특별한 추억을 공유해 유대관계를 형성했으며 자신의 처지를 절실히 호소함으로써 상대방의 연민을 일으켜 동정심을 얻었고 마지막엔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효과를 이끌어내어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규보가 이 작품을 전략적으로 써서 장자목을 설득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2) '虞' 단일운의 정교한 배치

排律詩는 당나라 과거제도에서 주요 시험과목의 하나로 선택하면서 보편화되었고 백거이, 두보가 배율시를 지으면서 크게 번성하여 공적인 영역에서 일상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배율시는 근체시의 한 갈래로서, 고시에 비해 각 행마다 엄격한 율격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또 최소 10행부터 수백 행에 이르는 장편의 작품이 많다. 장편인 만큼 서술의 체계성과 정서를 펼치고 뜻을 진술함에 있어 일관되도록 짓기 어렵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즉, 정제된 작품 속에서 형식미를 극도로 추구한 까다로운 양식이다. 그만큼 재능을 과시하고자하는 자리에서 즐겨 선택되었고 고관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격식을 갖추어 축하 및 애도를 하는 경우에도 즐겨 선택되었다. 따라서 시에 숙달되지 않은 사람은 짓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文才를 내보일 경우나 예의를 갖추어야 할 때 정중하게 보일 수 있어 즐겨 사용되었다.²⁹⁾ 이에 관직을 구하기 위한 시는 古詩나 律詩처럼 상대적으로 쉬운 작시법대신 까다로운 배율시로 창작되었다.

<呈張侍郎自牧一百韻> 역시 배율시에 속한다. 장편 五言排律 시인이 작품은 짝수 행 끝에 두는 韻인 押韻을 平聲 30계열, 上聲 29계열, 去聲 30계열, 入聲 17계열 총 106개 계열 중에서 평성에 속하는 글자를 가지고 지었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글자의 수가 많은 寬韻인 '虞'韻(殊·壺·湖·醕·孤·鱸·愚·瑚·圖·隅·衢·朱·愉·符·蒟·麤·巫·敷·姝·腴·膚·輸·于·汚·媮·駒·觚·紆·棼·渝·俱·虞·謨·甌·嶠·儒·沽·盧·竽·羆·都·扶·廚·哺·驅·吁·濡·圉·楡·徂·烏·株·餽·拘·誣·鈇·駒·婁·鬚·胡·蕪·塗·鳴·吳·須·奴·跗·徒·逋·梧·兪·絢·盱·蛄·迂

29) 황위주, 『한시란 무엇인가』, 지성인, 2018, 299~300쪽.

· 無 · 蘇 · 刳 · 枯 · 夫 · 媼 · 爐 · 珠 · 趨 · 呼 · 娛 · 姑 · 軀 · 區 · 踰 · 鋪 · 剡 · 趺 · 逾 · 躡 · 鳧 · 誅 · 嚙)에 속하는 글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반복 사용함으로써 지속되는 리듬을 구현하였다. 이는 음운학적으로 이웃계열에서 운자를 융통하는 通韻을 사용하거나 다른 운으로 바꾸는 換韻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압운만을 사용하는 ‘一韻到底’의 방식으로, 형식의 변화나 다양성 보다는 통일성을 강조하고 또 내용의 감정과 서술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적은 것이 일반적인 배율의 전통적 작시법이다.

그런데 이규보의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서는 一韻到底의 방식을 취하면서도 그 안에 감정의 변화가 순차적으로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물론 100운이나 되는 장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그 감정의 변화를 기준으로 단락의 구분이 가능하다. 詩行에 따른 감정의 변화를 따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呈張侍郎自牧一百韻> 감정에 따른 단락 구분

詩行	감정	韻字	계열
제1구에서 제26구	자랑스러움	殊 · 壺 · 湖 · 醕 · 孤 · 鱸 · 愚 · 瑚 · 圖 · 隅 · 衢 · 朱 · 愉	虞韻
제27구에서 제42구	즐거움	符 · 芻 · 麤 · 巫 · 敷 · 姝 · 腴 · 膚 · 輸 · 于 · 汚 · 媼 · 駒 · 觚 · 紆 · 吾 · 渝 · 俱 · 虞 · 謨 · 馯	
제43구부터 제132구	괴로움	嘔 · 儒 · 沽 · 盧 · 竽 · 獮 · 都 · 扶 · 廚 · 哺 · 驅 · 吁 · 濡 · 圉 · 榆 · 徂 · 烏 · 株 · 鋤 · 拘 · 誣 · 鈇 · 駒 · 婁 · 鬚 · 胡 · 蕪 · 塗 · 鳴 · 吳 · 須 · 奴 · 跗 · 徒 · 逋 · 梧 · 兪 · 絢 · 盱 · 蛄 · 迂 · 無 · 蘇 · 刳 · 枯	
제133에서 제2196까지	간절함	夫 · 媼 · 爐 · 珠 · 趨 · 呼 · 娛 · 姑 · 軀 · 區 · 踰 · 鋪 · 剡 · 趺 · 逾 · 躡 · 鳧 · 誅 · 嚙	

이규보가 虞韻만을 시종 사용하는 장편시를 지었던 것은 구관의 간절함이 컸던 까닭으로 보인다. 간절한 만큼이나 할 말도 많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는 한 운만 가지고 간절함을 쏟아내기 보다 내용과 감정의 변화에 따라 정연하게 구분되는 서술을 구사함으로써 그 자체로 자신의 유능함을 과시했다. 결국 유능함이야말로 관직을 얻는 데에 필수 항목이기 때문이다.

위 표처럼 이규보는 이 작품에서 ‘자랑스러움-즐거움-괴로움-간절함’의 감정을 순차적으로 전개시켜나갔다. 먼저 장자목의 훌륭한 공적을 읊으며 이규보가 그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와의 만남에서 술과 시가 빠지지 않으니 즐거워했으며 자신의 현재 처지를 말하며 괴로워했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장자목 뿐이라며 간절함을 드러냈다.

이규보는 배울시에 능했던 인물로 꼽힌다. 그가 배울시에 능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연보에서 보이듯 배울시가 國子監試의 과목 중 하나였던 것이 큰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1189년에 十韻詩 분야에 응시하여 1등으로 합격하는 등 이미 배울시에 뛰어난 능력을 자랑하기도 하였다.³⁰⁾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해당 작품은 장자목이라는 고관에게 자신의 재주와 학식을 보여줌으로써 구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인 시인데, 이규보는 그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배울시라는 형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였다. 구관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표현과 문맥으로 상대를 설득하는가도 관건이 되지만, 형식적인 측면도 아주 중요하다. 배울시는 보통 장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신의 시 창작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규보는 거기에다가 일백운이라는 장편시를 짓고 또한 아무런 환운 없이 오로지 평성 虞운에 해당하는 글자만을 압운하여 지었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30) 이규보, 위의 책, <年譜>, “己酉大定二十九年公年二十二, 是年春. 舉司馬試, 中第一. 以十韻詩賦之, 其題, 先王制軒冕, 著貴賤不求美. 公破題云, ‘太古無軒冕, 誰分貴賤流. 制之然後著, 美也不曾求.’ 又一句云, ‘始造聞黃帝, 徒行豈孔丘.’ 座主柳公嗟賞不已, 遂擢第一.”

군이 말하지 않아도 실력이 설득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장편의 시를 그것도 앓은 자리에서 짓는다는 건 실로 엄청난 詩才와 박식을 증명하는 것이다.³¹⁾

3) 열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고의 활용

전거 활용은 정해진 글자의 범위 내에서 말하고자 하는 정서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이다. 고전을 바탕으로 하는 전거 활용은 얼마나 많은 책을 정확하게 쓰고 있는가 하는 정보를 담고 있어 작자의 열독 및 지식수준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에 따라 전거의 활용은 오랫동안 작자의 학식과 재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따라서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 수록되거나 반영된 각종 사적들의 연원을 탐색하고 활용된 특징을 검토하는 것은 그의 열독 및 지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 된다.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서 활용된 전거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3> <呈張侍郎自牧一百韻> 시문의 전거 서적 목록

연번	典據	해당 行	부분	합계
1	『莊子』	蒼海聳南圖, 18행	<逍遙遊>	9
		泉澗自難濡, 94행	<天運>	
		唯我尙搶榆, 98행	<逍遙遊>	
		歸安曳尾塗, 124행	<秋水>	
		飲河盈臄腹, 133행	<逍遙遊>	
		跳井沒蛙跗, 134행	<秋水>	
		椿年語螻蛄, 148행	<逍遙遊>	
		鼻壘逢匠石, 173행	<徐無鬼>	
潛悲楚越逾, 188행	<德充符>			

31) 해당 작품이 즉석에서 지어졌다는 것을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의 自註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본고의 ‘열독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전고의 활용’에서 후술한다.

2	『後漢書』	朝登質直醜, 8행	권75, <張酺列傳>	5
		想像置生蕝, 30행	권53, <徐穉傳>	
		乾鼠謾相沾, 74행	권48, <應劭傳>	
		欲爲趨藻臯, 192행	<劉陶傳>	
		高論孰噓枯, 158행	<鄭太列傳>	
3	『史記』	馮唐方見遇, 13행	권102, <馮唐列傳>	6
		分儀漢絕隅, 20행	권99, <叔孫通列傳>	
		處囊容趙客, 33행	권76, <平原君傳>	
		橫氣試齊巫, 34행	권47, <孔子世家>	
		醜質慙康瓠, 75행	권84, <屈原賈生列傳>	
		死灰期復煽, 153행	권108, <韓長孺列傳>	
4	『漢書』	忠誠折檻朱, 24행	권67, <朱雲傳>	5
		投轄情何厚, 31행	권92, <陳遵傳>	
		酬卑合覆甗, 68행	권87, <揚雄傳>	
		襲狗幾謁駒, 114행	권65, <東方朔傳>	
		操修憐汲直, 141행	권64, <賈捐之傳>	
5	『晉書』	爽露凝瓊樹, 3행	권43, <王戎列傳>	4
		明時敢憶鱸, 12행	권92, <張翰傳>	
		但欣青眼眄, 37행	권49, <阮籍傳>	
		瓮邊眠畢卓, 45행	권45, <畢卓列傳>	
6	『論語』	顏氏舊如愚, 14행	<爲政>	3
		彤霄循北拱, 17행	<爲政>	
		學圃小人須, 130행	<子路>	
7	『詩經』	沐芳承湛露, 21행	<小雅·湛露>	4
		遺篇詠白駒, 52행	<小雅·白駒>	
		荷重猶投李, 67행	<衛風·木瓜>	
		樊蠅頑不死, 109행	<小雅·青蠅>	
8	『唐書』	帝室誇三鏡, 15행	권97, <魏徵傳>	2
		帶苓叢叟結, 129행	권143, <元結傳>	
9	『楚辭』	沐芳承湛露, 21행	<九歌·雲中君>	3
		申申愧女媧, 116행	<離騷>	
		佩潔紉芳蕙, 139행	<離騷>	
10	『戰國策』	堂上宿淳于, 46행	<燕策>	4
		北宮慙駕輦, 77행	<齊策>	
		市虎動成誣, 110행	<魏策>	

		脂粉强粧媼, 162행	<楚策>	4
11	『文選』	極辯馳黃馬, 51행	권55, <廣絶交論>	3
		蹇予誠齷齪, 69행	권2, <西京賦>	
		嘲龍多蝦蟇, 113행	권45, <解嘲>	
12	『全唐詩』	寒氷映玉壺, 4행	권143, <芙蓉樓送辛漸>	2
		酒膽鍾星白, 23행	권182, <月下獨酌>	
13	『禮記』	明堂寶六瑚, 16행	<明堂位>	2
		吟榻薰風散, 55행	<樂記>	
14	『韓非子』	南郭望吹竽, 78행	<內儲說上>	2
		功名劇守株, 104행	<五蠹>	
15	『春秋左氏傳』	忽憶參商別, 187행	<昭公元年>	1
16	『三國志』	江頭種木奴, 132행	<吳書 三嗣主傳 孫休>	1
17	『神仙傳』	背癢得麻姑, 174행	권7, <麻姑>	1
18	『韓詩外傳』	竹實談鷓鴣, 147행		1
19	『朝野僉載』	瑞夢曾徵鳳, 11행	권3	1
20	『古今事文類聚』	縱轡驚長衢, 22행	권29, <送張盥赴舉詩序>	1
21	『北夢瑣言』	癡龍殊未辨, 73행		1
22	『唐國史補』	芳醪斟石凍, 41행	권下	1
23	『孟子』	相迎似合符, 28행	<離婁下>	1
24	『夢求』	淵客豈無珠, 166행	<淵客泣珠>	1
25	『列子』	絃絶何由續, 95행	<湯問>	2
		人人慮竊鈇, 112행	<說符>	
26	『舊唐書』	門繼清廉鎬, 7행	권111, <張鎬傳>	1

위와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 수록된 각종 전거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시를 짓는 데에 26종의 책들이 활용되었다. 이 숫자는 이규보가 과거를 준비하기 위해 학당에서 배웠던 교과서의 수보다 많다. 이는 그가 학당을 나온 이후에 스스로 문학적 역량을 쌓고자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택해 읽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규보는 崔沖(984~1068)의 文憲公徒 제자이다. 최충의 학당에서 주로 가르치던 책의 목록은 『詩經』·『書經』·『易經』·『禮記』·『春秋』·『樂記』·『論語』·『孝經』·『孟子』·『小學』·『周禮』·『議禮』·『春秋左傳』·『春秋公羊傳』·『爾雅』

·『漢書』·『後漢書』·『史記』 등 이다.³²⁾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서 나온 전거 서적 목록과 교과서를 비교해보면 그는 교과서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그 위에 역사서인 『晉書』·『戰國策』·『三國志』·『北夢瑣言』·『舊唐書』와 도가, 신선사상의 경전인 『莊子』·『神仙傳』·『列子』 그리고 詩書와 관련된 서적 등을 추가적으로 읽고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 적용하였다. 그의 관심분야와 취향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먼저, 그는 해당 작품에 9가지의 역사서를 인용하여 이 시기 그의 최대 관심사가 역사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규보가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을 지은 해에 앞뒤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족서사시인 <東明王篇>과 <開元天寶詠史詩>를 지은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이나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말미암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은, 천마산에 우거하는 동안 역사서에 깊이 몰두하며 간혹 습작했고 그 결과 중국의 역사를 숙독한 것을 넘어 자국의 역사적 전통을 알리겠다는 포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東明王篇>을 지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³³⁾

또 이규보가 <呈張侍郎自牧一百韻>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서적은 중국 도가사상의 대표적 서적인 『莊子』이다. 그 이유를 추측해보자면, 고려 문인들의 陶淵明(?~?) 문학의 수용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³⁴⁾ 이규보의 문학 전반에 도연명의 수용이 드러난다. 그는 도연명이 五柳先生이라고 자號한 것을 본받아 1191~2년 그의 나이 이십대 중반에 天摩山에

32) 하정승(2020), 위의 논문, 174쪽.

33) <동명왕편>에서 '자국의 역사전통에 대한 긍지'(탁봉심, 「『東明王篇』에 나타난 李奎報의 歷史意識」, 『韓國史研究』 44, 1984, 90~103쪽.)를 볼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중국과 같은 신성한 나라'(노명호,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檀檀學報』 83, 1997, 302~303쪽.)라고 드러냈다고 했다.

34) 김주순은 「李奎報와 陶淵明 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방한문학』 35, 2008, 248쪽에서 고려 문인들은 무신집권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연명의 歸去來 사상에 크게 위안을 받았다고 했다.

서 우거하며 白雲居士라고 號하였다.³⁵⁾ 뿐만 아니라 그는 도연명의 본전과 시집을 읽고 그 廣達한 성격을 사랑하여 직접 <陶潛贊>을 지었을 정도로 도연명을 흠모하였다.³⁶⁾ 그러니 자연 도연명의 문학, 사상에 깊이 심취해 있음은 분명한 일이다.³⁷⁾ 그런 도연명은 莊子の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자연스럽게 이규보 또한 장자의 사상에 심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시에서 도연명이나 장자의 사상적 영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규보가 도연명을 따라 『莊子』를 숙독한 결과 자연스럽게 장자의 표현방식과 문학적 형상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한편 이규보가 <呈張侍郎自牧一百韻> 중간 중간에 달아놓은 自註를 통해 시가 지어질 때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기생을 불렀으나 오지 않았다.(時喚妓不至)”, “이때 천거하는 말이 있었다.(時有薦達之言)”, “이때 금을 잘 타는 중을 불렀다.(時呼能琴僧)” 등의 말을 통해 이 작품이 장자목을 앞에 두고 즉석에서 지어진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규보는 단순히 많은 책을 읽은 것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기억하고 전거를 상황에 맞게 활용하여 쓰기까지 각종 책들에 대한 이해와 깊은 조예를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즉 그가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을 창작할 시기에 다양한 책을 접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규보의 관심은 중국의 역사서와 사상관련 책들에 있

35) 이규보, 위의 책, <年譜>, “公年二十四, 秋八月, 丁父憂, 寓居天磨山, 自稱白雲居士, 作天磨山詩, 失之不錄前集, 後追覓之, 載後集初卷. 首句云, ‘世人但取山崔巍, 乃以天磨而號之者是也. 後常遊此山作詩, 若北山雜題重遊北山者是也.’”

36) 이규보, 위의 책, <陶潛贊>, “予讀淵明本傳及詩集, 愛其廣達故贊之云.”

37) 이성기, 『雲田 이창용박사 華甲 기념호 : 이규보의 作詩觀과 도연명수용의 양상』, 『겨레어문학회』 8, 1983, 294~5쪽에서 이성기는 이규보가 분명히 도연명의 사상이나 문학, 인간미에 깊이 심취했으며 그 결과 이규보의 작품 구석구석에 陶潛의 재취가 짙게 풍긴다고 말했다.

었다. 또 그는 각종 책들의 전거를 기억하고 문학 작품에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각각의 책에 대한 이해와 깊은 조예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자목에게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에 비로소 그동안 쌓아온 그의 실력을 보여주었으니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은 이규보의 열독과 지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4. 결론을 대신하여

백운거사는 고려를 대표하는 지식인이지만 그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극단적이다. 그는 뛰어난 文才를 지닌 탁월한 문인이라고 일컬어지는 동시에, 그 뛰어난 문학적 능력을 가지고 남에게 벼슬을 구걸하기를 서슴지 않는 문인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이러한 엇갈린 평가의 출발점에는 구관시가 있다. 일찍이 조선시대부터 이규보의 구관시는 고위 관직자들을 찬송하는 글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그러한 시각은 근대에 들어서도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출세라는 노골적인 목적 아래에 창작된 구관시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완성도와 함량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은연중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후대 연구자들로 하여금 구관을 위해 창작된 작품에 대해서 소홀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아울러 ‘구관’과 다른 사회비판적 측면에 주목하여, 청년기 이규보를 이해하는 데 편면적인 평가를 초래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조선의 많은 문인들이 향유한 작가, 杜甫·李白·朱慶餘 등은 구관시를 짓는 행위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구관류의 시들이 사회 친교적 문학 활동의 아래에서 나온 실용문학계열의 작품으로 당대의 일반적인 관례로 자리하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관시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는 한편 구관

시가 이규보의 시의 한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해당 작품의 분석을 통해 젊은 시절 이규보의 또 다른 측면을 읽고자 했다.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은 무신집권기 때 장자목에게 구관 및 친목을 위한 목적에서 창작된 장편 오언배율 시이다. 이 시의 구조적인 면에서 이규보는 ‘상대방의 칭송-상대방과 자신의 특별한 인연 환기-자신의 입장 호소-상대방 존재의 필수부가결성 강조’라는 4단락으로 장자목을 설득하고자 했다. 환심을 사서 상대의 마음을 열고 즐거웠던 추억을 상기시키고 공감대를 이끌어냄으로써 상대에게 ‘너’가 아닌 ‘우리’라는 개념을 심어주었다. 거기에도 또 자신의 힘든 처지를 구구절절하게 호소하여 상대에게 동정과 연민의 감정을 이끌어내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말로 상대가 자신의 부탁을 차마 단번에 거절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설득 구조는 이규보의 철저히 의도된 문학적 전략으로 생각된다.

또 작시법의 측면에서 이규보가 古詩보다 까다로운 양식인 오언배율을 선택한 것은 구관시의 전통적인 양식이기도 하고 어렵기 때문에 재능을 과시하는 목적에 충족되면서도 고관에게 부탁을 하거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서 알맞은 탓이다. 이에 이 시에서 平聲에 속하는 虞韻만을 가지고 98개의 운에 押韻했는데 비슷한 소리를 내는 通韻도 사용하지 않고 ‘一韻到底’ 방식을 선택했으며 얽힌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적합한 虞韻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지었다. 또 전거의 사용은 사학에서 교육하던 책 보다 많은 책을 읽고 습득하여 총 26종의 서적에 등장하는 73개의 고사를 구사해 내용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하나의 절제된 문학작품으로 만들어 스스로의 능력치를 증명하여 관직의 적합성, 절실함을 내보이는데 성공했다. 결국 이규보의 구관시는 폄하될 것이 아니라, 그의 문학적 역량, 테크닉을 총 동원한 작품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은 청년기의 이규보를 볼 때에 중요하게 다뤄 봐야하는 작품 중 하나라 하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규보’는 그의 젊었을 때의 ‘특정한 이미지’에 한정해있다. 그의 성격은 한창 혈기왕성하고 자존심을 부리던 때의 모습으로, 그의 역사의식은 <東明王篇>에 머물러 한 사람의 인생 전반을 같은 흐름에서 평가하고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가면서 사유와 감정이 변화하기 마련이다. 이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규보를 ‘특정한 이미지’로만 기억하는 것은 혹시 우리가 그를 하나의 박제품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 과연 그의 생각, 신념 등은 평생에 걸쳐 같았을까? 그러므로 이규보의 생애주기에 따른 삶의 궤적을 추적하고, 생활인으로서의 이규보를 복원하여 한 인물에 대해 균형 있게 살펴보는 점이 중요하다. 본고는 이를 위해 그의 또 다른 젊은 모습을 보여주는 <呈張侍郎自牧一百韻>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 많은 考究를 통해 이규보의 삶 전체를 조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권1.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33.
 『李太白集』, 권25.
 『全唐詩』
 李仁老, 『破閑集』, 권上.
 林椿, 『西河集』, 권2.
 『高麗史』, 권99.
 許穆, 『記言』, 권18.
 『論語』

강구영, 「杜甫의 求官詩 研究」,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71쪽.
 김경수, 『이규보 시문학연구』, 아세아문화사, 1986, 1~246쪽.
 김승룡, 『고려 후기 한문학과 지식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1~641쪽.
 김용환, 「李奎報의 現實意識과 求官詩」,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1~47쪽.
 김주순, 「李奎報와 陶淵明 詩의 비교문학적 고찰」, 『동방한문학』 35, 2008, 215~253쪽.
 김 현, 『김현 예술 기행/반고비 나그네 길에』, 문학과지성사, 1999, 1~494쪽.
 김효섭, 「고려 무신집권기 李奎報의 관료생활과 교유관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1~55쪽.
 노명호, 「東明王篇과 李奎報의 多元的 天下觀」, 『震檀學報』 83, 1997, 293~315쪽.
 배상우, 「李奎報의 求官詩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1~62쪽.
 신동욱, 『韓國現代文學論』, 博英社, 1981, 1~334쪽.
 유점순, 「李奎報의 現實認識과 宦路詩 研究」,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92쪽.
 이동철, 「이규보 시의 주제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1~347쪽.
 이성기, 雲田 이창용박사 華甲 기념호 : 이규보의 作詩觀과 도연명수용의 양상, 『겨레어문학회』 8, 1983, 289~310쪽.
 이희영, 「李奎報 排律 研究」, 『한국어문학회학술포럼』 40, 2018, 479~508쪽.

- _____, 「李奎報 漢詩의 內面意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148쪽.
- 탁봉심, 「『東明王篇』에 나타난 李奎報의 歷史意識」, 『韓國史研究』 44, 1984, 1~17쪽.
- 하정승, 「고려시대 유학 교육과 여말선초 학맥의 형성」, 『동방한문학회』 82, 2020, 168~200쪽.
- 황위주, 『한시란 무엇인가』, 지성인, 2018, 1~164쪽.

ABSTRACT

Consideration for <呈張侍郎自牧一百韻> of *Lee Gyu Bo* (李奎報)
 – Comments for Reviewing Youth Period of *Lee Gyu Bo*

Bae, Gyu-ri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backdrop and literary characteristics of *Googwansi* (求官詩: a poem to ask for an official post) by *Lee Gyu Bo* (李奎報) that has not been relatively noticed thus far in the domain of Chinese literature research, thereby, shedding a light on the period that *Lee Gyu Bo* had lived and newly elucidating his literary value.

Although *Lee Gyu Bo* passed the state examination for the government posts at the times, he was not granted as an officer for several years, and therefore, he created about 22 poems of *Googwansi* until being nominated as the very first official post. *Googwansi* was typically composed for those who have a friendly relationship, and in particular, he composed the <呈張侍郎自牧一百韻> for *Jang Ja Mok* (張自牧) who was in the position of *Sirang* (侍郎: a position of a vice-minister class) to demonstrate his literary competency.

This poem well illustrates his literary competency and skills.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the poem was structured with 4 paragraphs to persuade the counterpart, for instance, 'praise of the counterpart - reminding of a special connection between himself and the counterpart - appealing for his position - emphasizing that the existence of the counterpart is essential', and he used a strategy that gradually stimulates the emotion of the counterpart. In a formality aspect, <呈張侍郎自牧一百韻> was composed of utilizing 'Woo (虞)' rhyme on top of *Baeyulsi* (排律詩: a Chinese poem with violated rules). Since *Baeyulsi* has a relatively tricky form, it is suitable for showing off his skills and 'Woo (虞)' rhyme is also appropriate to convey his complicated feelings.

In this context, it can be speculated that *Lee Gyu Bo* chose the *Baeyul* (i.e. violated rules) and 'Woo (虞)' rhyme intentionally in composing the poems. Finally, he disclosed his knowledge level and hard efforts on studying through utilizing the broad and deep grounds, and he seemed to take advantage of those broad grounds to properly disclose his feelings rather than just listing them. In conclusion, it is thought that *Lee Gyu Bo* completely demonstrated his literary competence to other parties through 〈呈張侍郎自牧一百韻〉.

This study investigated 「*jeong jang sirang jamok ilbaekwoon*」 (meaning of the 100 verses for *Jang Ja Mok* in *Sirang* position). It is the first step to trace and to harmoniously examine a figure named *Lee Gyu Bo* with a trajectory of life as the life cycle. It is expected to have an opportunity that can exhibit his different aspects and shed light on his entire life through more researches in the future.

Key Words *Lee Gyu Bo*(李奎報), *Googwansi*(求官詩), *Jang Ja Mok*(張自牧), *Baekwoonsi*(百韻詩), Military Regime

논문투고일	: 2020.07.22
심사완료일	: 2020.08.07
게재확정일	: 2020.08.12